

신념은 혁명가의 생명

김 금 남

신념은 혁명가의 진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신념이 뿔뿔한자들이 갈 길이란 변절과 배신의 길밖에 없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며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시한번 새겨주는 진리이다.

혁명적신념은 혁명가들이 목숨바쳐 지켜야 할 가장 고상한 품성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념은 참된 인간의 징표이며 혁명가의 가치와 운명을 좌우하는 생명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권 412페이지)

혁명가에게 있어서 신념은 생명이다.

신념이 생명이라는것은 신념이 목숨처럼 귀중하다는것이다.

사람은 육체적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생명을 가진다. 육체적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생명은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다.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데 혁명가의 참된 삶이 있다.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은 혁명적신념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람이 밥을 먹어야 육체적생명을 유지할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혁명가의 정치적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사상정신적원천은 혁명적신념이라고 할수 있다. 혁명가가 신념을 잃으면 비록 육체적생명은 살아있어도 정치적생명은 끝장나게 된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신념을 잃는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체모도 유지할수 없다. 신념이 없으면 대가 없는 사람, 뼈가 없는 사람이 되고만다. 신념이 무너지면 정신이 죽고 정신이 죽으면 인간자체가 무용지물로 되는것이다.

사람은 신념이 강할 때 자신의 삶도 홀

륭하게 개척해나갈수 있고 동지들을 위해서도 처신을 똑바로 할수 있으며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도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신념은 곧 그 인간이며 신념의 높이는 인간의 높이라고 할수 있다.

혁명가가 지닌 신념, 혁명적신념은 혁명가로 하여금 한생을 가장 숭고하고도 보람찬 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에 깡그리 바쳐 투쟁하여나갈수 있게 하는 든든한 마음의 기둥이며 영생의 삶을 누릴수 있게 하는 원천이다.

신념이 혁명가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험난하면서도 장기적인 혁명의 길을 동요없이 갈수 있기때문이다.

신념은 자기가 받아들인 사상리론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필승에 대한 굳은 믿음이다. 혁명가의 신념은 혁명위업의 진리성과 정당성,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이다.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주권을 세울수 없을뿐아니라 자그마한 난관앞에서도 동요하고 주저앉게 되며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패배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바람이 부는대로 흔들리게 된다.

무슨 일에서나 확신을 가지는것은 성공의 첫째가는 비결이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떳떳하다고 확신할 때 마음속에 그 어떤 꺼리낌도 없이 그것을 끝까지 실현하려는 굳은 결심을 가지게 되고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게 된다.

혁명은 험난하면서도 장기적인 투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매우 어려운 투쟁이며 자연과 사회, 인간을 혁명

적으로 개조해나가야 하는 심각한 변혁과 거창한 창조과정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역사적위업이 한두해사이에 이룩될수는 없는것이다.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계승되고 완성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일찌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만경대를 떠나시며 지으신 유명한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는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그것은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과 손자대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조국해방위업을 완수하고야말리라는 역척의 신념이었다.

이러한 역척의 신념, 강철같은 신념이 없이는 장기적인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다.

혁명위업은 그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을 굳게 믿을 때 자그마한 주저나 동요함이 없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장기적인 혁명투쟁에서 권태감을 느끼게 된다. 권태감은 혁명투쟁에서 지루감과 싫증을 느끼게 하는 매우 유해로운 경향이다. 권태증은 안일성을 추구하게 하며 사람이 안락한 생활에 물젖게 되면 사상정신적으로 쇠하게 된다. 사상정신적으로 쇠는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표현이며 사상적으로 변질되어가는 나쁜 증상이다.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지 않고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혁명의 장기성과 난관앞에서 동요하게 되고 나중에는 배신자로 굴러떨어지기마련이다.

혁명위업의 정당성, 그 승리의 필연성을 굳게 믿는 사람은 목전의 시련이나 난관이 아니라 태일의 승리를 본다.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한 항

일혁명투사들은 나라를 찾기 위하여 끝까지 싸웠을뿐아니라 청춘의 꽃나이에 목숨도 서슴없이 바쳤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믿었기때문에 어떤 역경에서도 혁명가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으며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서 장렬하게 희생되는 순간에도 《조선독립만세!》, 《조선혁명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보람없이 보낸 백날, 천날보다 혁명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며 산 하루가 더 값있고 귀중하며 빛나는것이다. 그것은 항일혁명투사 최희숙동지의 생애가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적들의 만행에 의하여 두눈을 잃고도 나에게는 눈이 없지만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소리높이 웨친 최희숙동지의 불굴의 신념은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투철한 혁명적신념의 본보기로 된다. 원쑤들에게 두손을 묶이우고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한 최희숙동지의 말속에는 참으로 견결하고 자랑스러운 혁명적신념, 혁명적기개가 높뛰고있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말이며 혁명적절개가 강한 투사들만이 할수 있는 명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하며 승리의 그날이 눈앞에 보인다고 한 최희숙동지의 심장의 웨침소리는 오늘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을 영웅적위훈으로 부르고있다.

이처럼 항일혁명투사들이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싸울수 있었고 죽음앞에서도 이처럼 용감하고 떳떳할수 있는것은 그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다. 결국 필승의 신념은 혁명가들이 간고

하고도 장구한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 나가면서 한생을 빛내이게 하는 사상정신 적원천으로 된다.

신념이 혁명가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강의한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갈수 있기때문이다.

신념은 자기가 믿는 사상리론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굳은 각오이다. 혁명가의 신념은 필승에 대한 확신과 함께 혁명에 대한 헌신의 각오와 의지로 나타난다.

변하지 않으려면 확고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 의지가 부족하면 시련과 난관앞에서 주저하고 동요하고 변질되게 된다. 그것은 일정한 사상리론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쉬워도 모진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그것을 고수하고 그대로만 사고하고 실현해나가는 결코 쉽지 않기때문이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앞에 주저앉는가 아니면 일어서는가 하는것은 그가 어떤 각오와 의지를 가졌는가에 달려있다. 사람은 자기가 받아들인 사상리론을 믿을뿐아니라 그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려는 굳은 각오와 결심, 의지를 지녀야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끝까지 목적달성을 위해 투쟁할수 있다.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은 시련에 시련을 뚫고나가는 과정이다.

낡은것을 변혁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혁명가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기마련이다.

혁명가의 생활은 모진 고난과 시련을 뚫고나가야 하는 생활이고 혁명을 하자면 가슴아픈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 불타는 강도 건느고 진펄길도 걸어야 하며 격변하는 정세에 부딪칠 때도 있고 상상조차 할수 없는 정황에 맞다들 때도 있다.

이러한 시련의 길을 뚫고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자면 바로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신과 함께 그것을 기어이 실현하고야말리라는 굳은 각오와 결

심을 가져야 한다. 굳은 각오와 강의한 의지를 지닌 혁명가만이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와 주저를 모르고 용기백배하여 간고하고 험난한 혁명의 길에서 굴함없이 싸워나갈수 있다.

혁명을 하자면 리상만 가지고는 안되며 불타는 정열과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가는 불굴의 기상과 그 어떤 유혹과 강압에도 꺾이지 맞받아나가는 역센 절개는 혁명적의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평시에는 혁명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것처럼 말하다가도 생사를 판가리하는 시련의 시기가 닥쳐오면 혁명적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뒤걸음질치거나 변절하는 사람은 혁명적의지가 확고하지 못하고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칠 자기희생정신이 부족하기때문이다. 혁명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불타는 각오와 강의한 의지를 지닐 때 어떤 정황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완강히 뚫고나가는 투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혁명적지조, 명에나 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혁명을 하는것을 가장 숭고한것으로 여기는 고결한 량심을 지니게 된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이러한 혁명적신념을 가졌기때문에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살아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다는 철석같은 의지를 가지고 용감히 싸웠으며 비록 단두대에서도 꺾이지언정 굽히지 않았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용감한 전투원이였을뿐아니라 유능한 정치공작원이였던 마동희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였으며 원쑤들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문을 당하게 되자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자기의 혀를 끊었다.

혁명운동력사에는 혁명의 비밀을 지켜

끝까지 싸운 혁명가들이 수없이 많지만 마동희동지처럼 자기의 허를 직접 꿰는 혁명가는 없었다.

사람이 자기 허를 스스로 꿰는다는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마동희동지의 용기와 희생성은 신념이 강한데서 나온것이였다. 그 용기와 희생성은 어떤 고문이나 위협으로써도 거세할수 없는 무쇠같은 의지의 발현이였다.

이처럼 신념은 간고하고도 장구한 혁명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혁명가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이 귀중한것이다.

육체적생명이 살아있어도 신념이 없으면 정치적생명은 죽게 되고 신념이 있으면 육체적생명이 꺼져도 정치적생명은 영생한다.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혁명가로서의 절개를 지켜 원썬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지만 신념이 박약한 사람들은 혁명가로서의 존엄을 버리고 배신의 길에 떨어지게 된다.

력사적경험은 정세가 유리하고 혁명이 승승장구할 때에는 동요분자나 타락분자들이 생기지 않지만 정세가 불리해지고 혁명

앞에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면 동요분자도 생기고 타락분자, 변절자도 생긴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강의한 혁명적신념을 간직하였기에 국가적후방이나 지원이 없는 조건에서도 오직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확신하고 강의한 의지로 겹쌓인 애로와 난관을 뚫고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었다.

오늘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승리하자면 그 어느때보다도 강한 신념을 소유해야 한다.

제국주의와의 보이지 않는 대결과 경쟁은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고있는 모든 곳에서 치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이 투쟁에서는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만이 승리자로 될수 있다.

신념이 강한 당은 변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와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혁명가의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